

# 산들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            |    |
|------------|----|
| 금주의 말씀     | 2  |
| 중보기도       | 5  |
| 매일기도       | 6  |
| 성경 자세히 읽기  | 8  |
| 크리스마스 선물명단 | 11 |
| 가족소식       | 12 |
| 발에 감추인 보화  | 14 |
| 예가소식       | 16 |

## “일하는 기쁨”

10년 만에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이동 시간을 포함해 하루의 반을 차지하는 풀타임의 정직원이다. 10년 전에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터라 보통 아침 6시 반에 기상해서 내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자정을 넘겨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예가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던 나도 지쳐갔다.

무경력에 40대 중반의 아줌마를 채용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초심을 잊고 불평불만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가족의 비정기모임에서 내가 힘든 만큼 기도해 줍시다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호흡기도라는 확실한 처방대로 시간을 늘려 호흡기도를 하니, 역시 나의 삶이 달라졌다.

‘참 좋다’ 하며 6주기를 맞이하고 있을 즈음, 한 교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9년 전에 전도의 일환으로 지인, 혹은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예가교회의 101반을 소개하고 초청하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절하였기에, 이름 하여 거절통화이다. 내가 열심히

히 거절통화를 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예가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 예가공동체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였다.

자기가 가진 것을 넉넉하게 잘 나누는 교우에게 감사하면서도 부러워하며, 막연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공동체의 소득이 늘기를 바랐던 나로서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내 믿음의 현주소였다. 나로 인해 공동체에 믿음이 없었나 보다. 믿음과는 관계 없는 허접한 이유들은 다

집어 던지고,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할 단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아니, 이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망각하고 살았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인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내 옆에 있는 교우를 더 좋아하고, 그 교우에게 잘할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공동체 협의 시간에 나누고도 남는 소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협의하며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매일의 호흡기도를 통해 내 옆의 교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2015년 12월을 맞이하게 되어 참 기쁘다.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2016년이 기대된다.





■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그 의미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괴로운가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괴로움에 관한 시각



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죄와 괴로움의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결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눈보다 희게 된다는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99.9%의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고 내 죄를 뽀뽀하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용서 받기 위해서 1년 된 흠이 없는 염소를 준비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상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준비하면 제사장이 염소를 제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식의 제사가 없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예수의 속죄제사로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모두 구약성경을 보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내용 중 제사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예수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울 생각이 있으면 꼭 연경반에 3개월 이상 나와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므로 잘못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요건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의 요건은 자기가 죄가 많고,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며, 자기가 어리석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 요즘에 공감이라고 하지만, 그 공감에 큰 제사장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한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저야 은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의 죄를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양에 비유해서 예수는 흠이 없다고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맥인 예수는 연약한 분이라는 부분을 짝 빼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물인 양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물인 양을 선택하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제사장을 택해서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뒤섞고 성경을 이리 저리 꼬아서 속죄의 교리를 만들고 다시 그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이고 예수님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의 문제를 다루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제물을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문자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이 이야기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뜻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한다.”고 요한복음



서에 적혀 있듯이 말입니다.

성경책은 여러 권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한 권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서신이면 바울서신, 복음서도 네 개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 결론은 났습니다. 그저 성경은 구약에는 제사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는지, 연속성은 무엇이고 불연속성은 무엇인지 연구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의 길이라고 착각하면 힘들어 집니다. 사랑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했으니 참된 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피는 무엇이 됩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과 관련하여 12장 24절에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는 무엇입니까?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벨의 형 카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피가 흘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몰라요,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모른다는 이 말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이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은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한테 나의 형이 나를 쳐 죽였소’ 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 피는 벌까지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괴롭게 산 사람입니다. 아벨의 피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벨의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가 땅에 흘려지면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윤리적 질서는

아벨의 피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발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피를 가진 아벨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의 피를 용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고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태까지 이 세계의 질서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데 반해서, 새 언약은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공감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새 시대의 새 질서입니다. 옛 질서는 고발이라는 질서를 생산하고, 새 질서는 용서라는 질서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옛 질서 속에서도, 새 질서 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발하는 방식이나, 용서하는 방식이나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괴로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잘못에 용서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비록 우리 인생은 죄가 많으나 괴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계를 지배해 온 장장 2천 년 동안 이 용서라는 질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아마 교회 초창기에는 그러한 질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질서가 우리가 충분히 알만큼 세상에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발된 새 체계는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비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태까지 누구의 잘못을 보고, 혹은 그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를 고발하고 저주하고 벌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왔습니까? 아니면 그와 공감하고 그를 붙잡고 여기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왔습니까?

용서는 감정 문제가 아닌 돈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빚 갚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돈으로 환산되니까 돈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쌓아놓아야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내가 돈으로 갚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용서는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렸는데 입이 쪽 찢어졌습니다. 기분 무지하게 나빴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면서 천억을 딱 준다면, 기분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풀립니다. 그러니 감정 문제가 아닌 돈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빚 갚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돈으로 환산되니까 돈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쌓아놓아야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내가 돈으로 갚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한 대 쳐 봐. 너 돈 많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철학박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고매한 것은 철학자들한테 맡기고, 잘 사는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꾸었습니다. 꾸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날 쳤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꾸간 사람이 돈을 갚진 않지만, 갚을 생각이 있고, 갚고 싶어 하고, 갚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별이가 없어서 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먹살을 잡혀도 꼼짝 못 합니다. 이럴 때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하며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다니기 힘듭니다. 구약의 모세로부터 예수님으로 넘어오는 이야기의 시작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얼마나 뚫뚫한지 우리가 묻고 싶은 중요한 부분에서 질문까지 해 줍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무슨 신학교 선생님들은 일흔 번의 일곱 번 용서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인간이 어떻게 일흔 번의 일곱 번을 용서하나? 그러니까 인간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서신도 그 맥락이 있습니다. 율법,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은 전부 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잣대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더 이상 죄가 죄가 아니지만,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인간이 만든 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고 보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가 없으나 사람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당연히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항상 규칙, 법, 도덕, 윤리를 찾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한 인간으로, 낱날의 사람으로, 숨결 있는 사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살면서 사람의 숨결이 느껴질 그 때에 용서가 있는 것

입니다. 바로 그 때에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를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하고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2천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여전히 세상은 옛 질서 속에서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도 계속해서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길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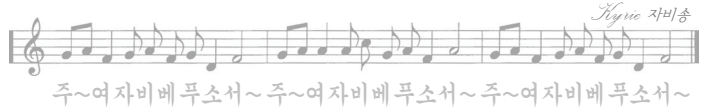
희은 박용제: 요한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카라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마르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유랑님에게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즐거운님에게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한가온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화음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푸른님과 신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열매님과 유유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늘빛님에게 격려 문자를 하고 반찬선물을 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나무님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샤론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온유 김형미: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아침기도 후 가족에게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맑은님, 샘물님께 선물을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늘빛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해 석재호: 보라님에게 안부와 성경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보라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달빛님에게 먹거리를 선물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새롬님에게 반찬을 선물하겠습니다.  
 보라 석순근: 새롬님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만남을 갖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새롬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마리아님에게 말씀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찬미님에게 감사 문자와 장갑을 선물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성실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찬미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사귄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빌립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가족 한 명에게 감사의 문자를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성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생명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모란님에게 선물과 편지를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가족모임에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가족들을 위해 건강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가족들에게 선물할 도서리스트를 작성하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고래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사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조끼 만들기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에스더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에스더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감사문자를 2회 하겠습니다.



# 대림절 둘째 주



## 아침 기도

### 시편찬양

시편 85편 1~2, 8-13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돌아오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 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 첫 기도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의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구원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  
르게 하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  
치시고, 행하신 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고난 받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독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5-6/1-2/3-4  
5-6/1-2/3-4  
소리내어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  
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  
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 밤 기도

### 시편찬양

시편 85편 1-2, 8-13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춥다.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 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72 회



##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34)

지금까지는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설정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만 남았다.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주제를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먼저 8장 42절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요8:42)

요한복음 8장은 전체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8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한 이야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 하는 대목이다.

“[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요8:3-6a)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런데, 정말로 모세가 간음한 여인에 대한 법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한 바대로 선포했던가? 본문의 근거로 삼는 토라의 내용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다. 먼저 레위기를 보자.

“[10]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레20:10)

레위기 20장을 근거로 한다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끌고 온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어야 한다. 즉, 간통을 한 두 남녀가 끌려와야 한다. 그런데, 여자만 끌려왔다. 게다가,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정황은 언급되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토라의 규정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토라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남녀차별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기의 규정이 요한복음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어떠한가?

“[22]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3]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24]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신22:22-24)

신명기의 경우도, 레위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남자와 여자를 모두 끌고 와야 하고,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이거나 약혼자여야 한다. 모세라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끌고 오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이거나 약혼자인지에 대해서도 따졌을 것이다.

그런데, 돌로 쳐죽이는 형을 집행할 때에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심판하는 공동체가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20장의 전제로 선포되고 있는, 19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레19:1)

레위기 19장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에 게 잘해야 할 것과 같은 동족끼리 해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성결법의 법령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놓여있다.

“(17)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18)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레19:18)

19장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20장의 계명들을 적용하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타이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레위기 20장의 법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즉시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법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법들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즉시 심판을 받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도록 타이르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들을 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방식일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방식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서 보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용서’를 가르치셨다. 게다가, 예수님은 한 두 번의 용서도 아니고, 일흔 번의 일곱 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렇게도 오랫동안 많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심각성에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들 자신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살고 있지 않음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을 가지고 동족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참아오신 역사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음했다는 여인을 향해 가차없이 법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것도, 남녀 두 사람 모두가 아닌 약자에 속한 여자만 붙잡아 놓고서 말이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담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억누르고 죽이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그쳐 묻자, 한마디로 대답하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8:7)

그래도, 그 자리에 모여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여인을 심판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8]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9]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서 있었다. [10]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 [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요8:8-11)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레위기 성결법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예수님은 여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녀가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타일렀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이다.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위험하기 그지 없다. 권력의 구도 속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관대해서는 안된다.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관대하면, 힘없는 자는 힘있는 자를 우습게 여긴다. 즉, 힘없는 자는 힘있는 자의 힘을 의심하고, 급기야는 도전하게 된다.

법이라는 것은 통치자들 보다는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해야 정상이다. 그래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법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적이 있었단가? 없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리로 통한다.

통치자들은 소수이고, 백성은 다수이다.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방법은 소수가 다수에게 법을 철저하게 적용할 때에만 통치가 유지된다. ‘법치’라는 것은 절대소수가 절대다수를 영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이다. 왕의 뜻이 곧 법인 시대에는 왕의 힘이 곧 법의 힘이었다. 즉, 왕이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면, 왕의 법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불안정국으로 들어간다. 내란이 일어나거나 외세의 침입이 일어난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처럼, 즉, DNA가 자기를 보존하고 증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숙주로 이용한다는 이론처럼,



권력은 그 자신을 존속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화한 것 같다. 그것이 ‘법치’이다.

어떤 이들은 고대 중국 진나라 때의 법가와 현대국가의 법치가 다르다고 말한다. 즉, 법가는 왕을 위한 통치방식이고, 법치는 국민을 위한 통치방식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법가 사상은 한비자 등의 뛰어난 사상가 등에 의해서 주창된 통치방식인데, 법가의 강점은 1인의 위대한 왕보다는 99명의 평범한 왕을 위한 통치방식이라는데 있다. 법가는 왕보다는 법과 관료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즉, 왕이 무능력해도, 법과 관료제에만 튼튼하면 나라가 흔들릴 위험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왕이 무능하면 법으로 왕을 바꿀 수도 있다. 춘추전국시대 이전에는 왕이 혈연에 의해 계승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법가 이후에는 왕의 혈족이 무능하면 역성혁명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조선은 유가의 나라라고 하지만, 통치방식은 법가의 것을 계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역시 강력한 군주보다는 강력한 관료제, 즉 사대부 체제와 법을 통해 통치되는 나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은 관료제도의 부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론삼사(홍문원, 사간원, 사헌부)를 두어 왕과 신하 모두를 견제하여,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했다. 이념적으로 조선은 인의를 통치의 이념으로 삼은 유교국가였지만, 현실적인 정치는 법가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래서, 왕과 사대부들 간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놓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500년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처음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중국을 통일한 다음,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법가를 택하고, 법가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아니어도 지속될 수 있는 나라를 원했다고 하지만, 관료 시스템이 부패하면 강력하고도 똑똑한 군주가 다시 요청될 수 밖에 없다. 법이고 뭐고 간에 일단 힘센 군주가 나타나서 혼란을 평정해

야다시 질서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시대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 뿐만 아니라, 1980년대까지도 군인들의 군사쿠테타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곤 했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항상 혼란한 사회와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자칭 법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법치국가를 표방하면서도 법이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냐고 주장하면, 그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선진국에서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편이라고들 대답한다.

한국에서 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법치국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낮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작은 법규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좋은 법을 원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각자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법이 자기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고들 말한다. 결국,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법이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관료 시스템은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권력이라는 것은 힘센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마련인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의 행보는 만인 앞에 평등한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힘센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법들이 폐기 내지는 개정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은 법의 폐기 내지는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적 시위를 해야 하며, 집단적 시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법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없다. 법치의 이념은 나쁜 법은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길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시위조차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위를 통한 법의 개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대부분의 시위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함으로써, 시

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막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앞뒤로 문들 닫아 놓고서는, 시민의식의 수준이 낮아서 선진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길이 멀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수준이 올라가면, 관료 시스템은 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 된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고급 공무원들이 무임금 봉사직이거나 임기가 1년 미만인 나라도 있다. 국회의원도 봉사직이라 임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권력이 집중되기 어려워진다. 그들 나라에서는 법교육이 주요한 국민교양교육에 포함되어 있어서, 초등교육을 받을 때부터 법에 대한 교양수업도 함께 받는다. 서구의 기준을 놓고 보면, 한국은 아직 법치나 시민사회의 수준이 매우 낮은 쪽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국민들이 게으르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 및 법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나누어 주거나, 줄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의 법치국가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이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길에서 침을 뱉는 식의 작은 법규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치 수준이 낮은 채로 지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시간에 계속...)





## 즐거운 크리스마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정하셨나요? 아이들 명단을 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밑에 밑줄이 있는 아이들이 남자, 밑줄이 없는 아이들이 여자입니다.)





#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 맑은 성실가족

나무님 집에서 12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맑은님을 좋아하기 위하여 신당동 떡볶이집을 답사하며 사귀어서 좋았다, 맑은님이 찾아와 주어서 좋았고 다음에는 내가 찾아가야겠다, 이틀간 가족 6명을 만나고, 뮤지컬 관람하며 섬기고 격려하며 사귀는 기쁨에 푹 빠져 살아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다, 나에게 이런 신기하고 좋은 경험을 하도록 시간을 내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찬미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인도자 그룹으로 사귀는 시간을 갖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을 못했다, 소식지의 찬미님의 발보를 천천히 읽으며, 믿음 좋은 친절한 소머즈로 성장하는 찬미님이 좋아 늦은 밤에 사랑의 칭찬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엔 발표 즉시 약속을 잡아 성실가족 인도자 그룹의 팀워크를 다지고, 찬미님을 더욱 좋아하는 시간을 갖겠다, 바다님의 건강을 위해 사과를 선물했다, 환절기에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야님에게 반찬을 선물하기로 했다, 광야님을 생각하니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며 가족모임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에 감사했다, 선물로 낙지젓을 준비했다, 한 해를 돌아보

니 가족모임 안에서 함께하는 일을 좋아하며 지금 여기에 집중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빌립님과 함께해서 참 좋았다, 가족모임에 가고 오는 길을 편안하게 해 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좋은 말로 힘을 주는 빌립님에게 감사하며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일하는 빌립님의 몸을 따뜻하게 할 내의를 선물했다, 바다님을 더욱 좋아하기 위하여 바다님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빵을 샀다, 바다님이 간식이나 식사대용으로 맛있게 드실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내게 맡겨진 교우들을 사랑하는 삶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모두 내장하고 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바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현세적이다, 바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살았다, 카톨릭, 개신교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누릴 수 없겠다’는 느낌을 준다, 바울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에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맑은가족 모두에게 칭찬문자를 보내겠다, 교우 3명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겠다, 에스더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다, 어린이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화음 사랑가족

불꽃님 집에서 13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진주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함께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즐거웠다, 느끼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 느꼈다, 고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선물과 편지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직 잘 모르는 고래님을 떠올리며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했다, 고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을 해보니 고래님이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뿌리님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다음에는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싶다, 사랑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설레고 좋았다, 사랑님에게 잘 어울릴 선물을 생각하며 즐거운 고민을 하였고, 바쁜 뿌리님이

시간을 내어 준 것에 고마웠으며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 하루 하루를 즐기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지금 여기를 살며 매일 부활한 바울처럼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 신나님에게 선물을 하고 연말에 사귀는 갖기로 하였다, 시원님이 항상 귀에 딱붙는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예뻐서 겨울 눈꽃모양의 귀걸이를 선물하였다, 시원님과 공통의 주제로 믿음의 삶을 고백한 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였다, 화음님이 필요로 하는 살구색 타이즈와 바디로션을 선물하였다, 야고보서를 읽고 푸른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직장을 방문하고, 푸른님께 어울리는 향수를 선물했다, 한가온님이 출 퇴근할 때 치마 안에 입을 수 있는 따뜻한 기모속바지를 선물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내 주변의 교우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에서 죽음과 부활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 교리에서 설명하는 부활은 내세에,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은 현세에 중점을 둔다는 것



이 다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을 믿고 기도하겠다, 아모님에게 감사선물을 하겠다, 에스더님에게 이사선물을 하겠다, 진주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다, 김장대장 새롬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소식가족

카라님 집에서 조영희 목사님과 함께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요한님을 좋아해서 아침에 가볍게 먹을 과일을 준비했다, 요한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기뻐다, 등대님을 생각하고 감사 메세지를 준비한 것이 기쁨과 유익이 되었다, 희은님을 더욱 좋아하기 위해 일대일 만남으로 만나, 내가 잘 살았던 일을 나누고 믿음을 격려했다, 새 집에서 쓸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다, 희은님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사는 삶을 떠올리며 호흡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더욱 밝아졌다, 가족모임 스케줄을 최우선에 두는 유랑님에게 감사했다, 유랑님에게 필요한 물티슈를 주문했다, 희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문안의 시간을 가졌다, 아카펠라 연습을 지도하는 유랑님에게 감사인사와 선물을 할 계획을 세웠다, 유랑님이 좋아하시는 더치커피를 선물로 드렸다, 유랑님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유랑님이 더 좋아

져서 기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믿는 죽음과 부활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이고,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써먹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 것인가도 죽음과 부활 주제와 연결시켰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존재다,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겠다, 토요일 성가대 월례행사에 음료를 준비하겠다, 시원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모통이돌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광야님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하겠다, 초등부 교사 회의 후 후식을 제공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포도 드림가족

새롬님 집에서 12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계획한 일대일 만남을 모두 할 수 있어서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가족 모두와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가족들의 근황과 관심을 잘 알 수 있었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더 좋아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에스더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에스더님을 위한 중보기도와 방향제를 선물하게 되어서 좋았다, 소망님을 격려하는 문자를 아침기도 후 보냈다, 치과치료로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소망을 위해 죽을 선물했다, 소망님이 가족과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언제나 믿음의 동지로 함께 해주는 소망님에게 감사했다, 은석님을 좋아해서 대추차를 만들어서 선물했다,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는 것이 좋았다, 사람을 좋아할 때 이 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다, 미리내님을 좋아해서 미리내님이 평소 좋은 말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함을 전했다, 모통이돌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일대일 만남 약속을 미리 잡고, 나눌 성경구절을 찾아보고, 어떤 선물을 할까 준비하며 평소 때 보다 많은 시간을 모통이돌님을 생각했다, 가족모임에서 음식준비와 노래준비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했다, 아모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자고 계획을 하고,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며 아모님 생각을 더하게 되는 것이 좋았다, 감사함의 표현으로 선물을 드리며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보라님을 좋아하기 위해 기도 후 보라님을 생각하고, 감사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보라님이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바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살았다, 나도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내일

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였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리는 내세에 집중되어있고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부활은 바울의 부활처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여 내게 맡겨진 교우들을 사랑하며 살고 부활은 함께 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감이 갔고, 지금 살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현세적인 반면에, 여기 소개된 교리들은 매우 내세적인 느낌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려야겠다, 성실님에게 선물하겠다, 신발을 정리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당신의 시간은 지금 몇 시?

화음가족 유유 박서연



예가 가족을 떠나 먼 곳에서 카톡으로 소식을 기다리며 지낸지도 벌써 일 년 반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여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떠올리면 짧지만은 않은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예가교회와 화음가족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마치 어제 떠나온 것처럼 축소되는 느낌이다. 그 건 아마도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꿈 화음 가족이 늘 사랑으로 아끼고 챙겨주시는 덕분인 것 같다. 예가교회 홈페이지에서 보는 환한 얼굴들을 담은 사진과 글, 또 화음 가족이 함께하는 대가족만남, 초청자들과의 사진과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소중한 매체들이다.

비록 떠나 있지만, 지난해 여름까지 일 년 남짓 예가교회에서 가족모임으로 지내면서 다듬어진 몸과 마음이 여기에서도 힘든 일들로 고민하고 투정하기보다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진 몸으로 살 수 있게 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은 내가 머물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보도될 만큼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난 여름에 발생한 찰스턴 교회 총기사건, 그보다 먼저 일어난 내가 속한 학교에서의 총기사건, 또 얼마 전 1000년에 한번 일어날만한 물난리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많은 도

시에서 도로가 폐쇄되고 집과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들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 내가 사는 집에도 전기와 물이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생기고, 학교를 일주일간 쉬고, 또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다니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논문작업과 수업을 병행하는 일상에 이런 사고들이 터지면 예전 같으면 불평이 생길 만도 한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일 년 반 동안 나쁜 마음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없다. 더구나 화음가족은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알고 귀한 구호 물품을 보내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듬뿍 담은 편지들을 보내서 내가 더욱 따뜻한 사랑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지난 겨울방학에 짧게 서울에 머무르면서 가족들과 스토리 만들기를 같이 한 덕분에 나도 사귀기를 좋아하는 “유유비긴스”의 캐릭터를 떠올리며 일 년을 지낼 수 있었는데, 음악 수업을 새롭게 듣고, 새로운 요리들을 시도해 보았다. 덕분에 이제는 여섯 명이 모이는 파티음식은 한 시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짬짬이 친구들을 위해 (웃음 나오는 실력이지만) 피아노와 첼로 콘서트를 열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모두가 화음가족과 예가교회의 가르침 덕분이다.

몸이 떨어져있어서 일대일만남은 못하지만 카톡으로 약속을 잡으면 그 시간이 기다

려지고 기대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관계로 낮과 밤이 반대로, 14시간이라는 시간차가 약속 잡기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하루 전인지 하루 뒤인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면 같은 시간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게 한다. 이번 겨울에는 한국방문은 못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가족 스토리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성탄절 예가 식구들의 환한 얼굴들과 멋진 음식들도 가슴 두근거리게 한다. 비록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같은 세상에 사는 화음가족 유유로 또 일 년을 계획하겠다.



# 인물열전

자유 김선우

12월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자유 김선우님입니다. 점점 멋있어지는 자유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자유'라는 새 이름은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이 좋아서 제가 지었어요.

2. 학생부에서의 캐릭터와 올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니과라부의 파인애플입니다. 하마(양동엽)팀장님의 뒷바라지 및 잔심부름을 하는 캐릭터죠. 작년에 비해 스케일이 커지고 옵션이 풍부해진 팔빙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학생부에서도 성찬대접을 하는데 잘하는 요리가 있나요?

저는 하마형님이 만든 제육볶음 소스를 고기와 골고루 섞어 잘 재우는 능력이 있어서 오직 섞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명화(이정우)형님의 노하우를 물려받아 초록색 설거지판에 같은 종류의 그릇을 배열해서 기계에 넣고, 볶음을 한 프라이팬은 꼭 물에 불려서 닦습니다.

4. 사랑의 실천으로 특히 더 좋아진 사람이 있나요?

카라님께 간식을 드리고 나서는, 더 반갑게 인사하게 되고 달라 보였습니다. 하마형님에게 타이마사지를 흉내 내어 등도 밟고 팔꿈치와 손 측면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

주었는데, 다음 날 하마형님이 파스를 붙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5. 대기명당 프로그램 (스케줄, 암기, 독서, 운동, 영어 등)중 가장 좋아진 것은 무엇인가요?

영어단어를 빨리 암기하게 되었어요. 독서는 특별히 나아진 느낌은 없는데, 꾸준히 읽으니까 좋아요. 읽은 책 중에 한국의 노포(오래된 식당)를 찾아 그 오래된 식당의 역사, 음식과 맛을 소개하는 박찬일의 '백년식당'에서 소개한 '우례옥'에서 냉면을 먹고 왔는데, 책에 나온 식당에 다녀왔다는 의미가 있었죠. 또 이동진의 '필름 속을 걷다'라는 책은 영화 속의 배경이었던 도시를 소개하는데 '러브레터'에 나오는 핫카이도 스키장에 다녀왔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내 또래가 부모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사연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운동은 골프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라 올해 12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베트남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와 3학년부서는 1교시만 수업하고 골프연습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6. 홈페이지의 대기명당을 둘러보면, 자유가 성실하게 여행계획을 올려 인상 깊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기대하는 바를 얘기해주세요.

미안마로 가는데 사원이 3천 개나 있는 바간이라는 도시에 가서 열기구가 떠 다니는 사원 사이의 일출을 꼭 보고 싶어요.

7. 함께 먹고 자고 놓고 공부하면서 가장 친해진 선배나 후배는 누구인가요?

초등학교 때는 여자들과 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숨(이지원)누나 미르(김정인)누나, 늘품(양진아)와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8. 체중감량으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지난 사순절에 요셉(홍진표)형이 주중에 매일 한 끼씩 5끼 금식을 한다고 해서, 저는 주말 5끼 금식을 하면서 10kg 가량이 빠졌어요. 살이 빠지니까 옷 입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해도 체중유지가 됩니다.

9.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읽는 교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즐겁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대림절기입니다. 이 땅의 고난을 묵상하는 대림절기 동안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형제에게 잘하고, 좋아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로 지냅니다.

2. 주일 연경반 강의는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3. STS(Searching The Scriptures) 하반기 강의는 산상수훈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으니,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4.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목요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목요일 밤에는 소식지를 펼쳐놓고, 교회의 활동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5. 2015년 크리스마스는 한 해 동안 사귀어 가진 이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갖습니다. 칸타타예배는 가족모임과 부서별 발표회로 대체하여 갖습니다. 이 날 발표를 위한 준비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부터 만찬과 부서별 발표로 갖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며, 파티 후에는 선물나누기, 그리고 0시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6. 호흡기도를 매일 합시다. 호흡기도는 주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호흡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이 누리신 자존감을 가지고, 통크고 당당하고 밝은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습니다.

7.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광야, 찬미님입니다. 예배위원은 한 주간 동안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성실가족이 대접합니다. 12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 날짜 성경읽기

| 날짜 | 성경읽기                     |
|----|--------------------------|
| 월  | 사도행전 25장<br>~ 로마서 3장     |
| 화  | 로마서 4장<br>~ 로마서 10장      |
| 수  | 로마서 11장<br>~ 로마서 16장     |
| 목  | 고린도전서 1장<br>~ 고린도전서 9장   |
| 금  | 고린도전서 10장<br>~ 고린도전서 16장 |
| 토  | 고린도후서 1장<br>~ 고린도후서 9장   |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